

人造다이아몬드 成塊裝置紛爭

—參證圖面이 나온 判決의 標本—

虛榮의 꿈이 될 수 있는 이른바 다이아몬드는世人이 알다싶이 單一元素인 炭素의 成塊임은 말할나위가 없다. 그 덩어리는 高壓으로서 炭素原子를 주먹밥뭉치듯 凝固시키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이며 그 原理가 現代의 鍊金術이다.

그러나 르블博物館에 展示된 리젠트 다이아몬드와 같은 天然다이아몬드가 眞實한 寶石으로서 사람들이 渴求하는 것이며 그 原產地는 印度이고 1701년에 鑛夫가 광산근처를 흐르는 냇가에서 고기를 잡다가 發見한 것이다.

요즘의 다이아몬드는 南아프리카가 主產地로 알려져 있으나 옛날에는 인도가 그 主산지였다.

이같은 다이아몬드가 연금술에 의한 特許對象이 되고 있음은 當然하며 1955년에 드디어 美 GE會社가 人造다이아몬드의 合成에 成功하였다고 發表함으로써 다음 안년 GE이기 때문에 더욱 活題의 대상이 되었다.

GE가 開發한 內容은 人造다이아머를 만드는 高壓裝置의 개발이며 이 裝置가 GE의 벨트 裝置라고 불리운다. 즉 다이아몬드를 生成하려면 數萬氣壓의 압력을 瞬間的으로 주게되므로 그 高壓狀態를 維持하는 裝置를 開發한 것이다.

GE의 다이아몬드製造技術開發이 발표되자 美國政府는 即刻 그 製法과 裝置의 公表를 禁止시키는 한편 諸外國에의 特許出願도 停止시켰으며 그 理由인즉 國防上 不可避하다는 것이었고 그후 1959年 9月 8日까지 公표의 금지가 계속되었다.

이 制限이 解除되자 GE는 主要各國에 다음 날인 9日자로 특허출원하였고 發明의 「名稱

은 高溫高壓裝置」였다. 우리와 隣接한 日本에도 그날자로 출원하여 61년에 公告되었으며 63년에 登錄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약삭빠른 어느 日本人이 GE의 特許權設定登錄을 前後해서 人造다이아몬드의 工業的 生産을 시작했다. 그 製造會社는 63년에 設立하고 다이아몬드의 제조, 加工, 販賣를 業種으로 내걸었다. 물론 그 製法은 高압 장치로 합성하는 것이었다.

이 事實을 確認한 GE는 우선 簡易法院에 54年 9월 證據保全을 申請하였으며, 65년에는 地法에 그 製法을 相對로 特許權侵害禁止 訴訟을 提起하였다.

이 事件에서 問題된 것이 증거보전신청때에 提示한 高壓裝置의 圖面과 侵害訴때에 제시한 도면이 檢證할때에는 바뀌었다는 點이다.

差異의 理由에 대해서 GE는 증거보전때의 것은 상대가 人造다이아머의 公業생산때 사용하는 것이고 檢證때의 것은 그저 檢證用으로 제시한 도면이므로 차이가 있다고 主張하였다.

이에 대한 相互反論이 제시된지 10년후 東京地法은 GE의 請求를 棄却한다. 그 이유는 GE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기 때문이란 것이었다.

다시말해서 그 製法은 증거보전신청 당시의 GE도면대로의 裝置를 사용한 흔적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GE는 이 判決에 不服하여 抗訴하였으며 그뒤의 結果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國際的 大企業과 無名의 小企業間의 紛爭이 1次에서 소기업이 勝訴하였다는 典件의 背景은 熟考할만하다.